【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국, 이혼보험 개발 가능성 논의

□ 미국 일리노이대학 의사결정학 교수인 웨스트랜드(J. Christopher Westland)는 이혼보험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보험 개발을 위한 대략적인 보험통계표를 선보임.

- o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해 200만 쌍 가량이 결혼하고 결혼 후 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은 20%, 10년 안에 이혼할 확률은 30%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이혼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o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 독립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더욱이 이러한 재무적 압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혼보험은 이러한 비용을 담보하게 되며 2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2,500달러 정도로 계산됨.

□ 웨스트랜드 교수는 이혼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인의 경우 이혼 가능성이 낮으며, 성범죄를 경험한 여성이 이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o 그 외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낮아지며, 특히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결혼 초기에는 이혼 가능성이 낮으나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혼의 경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음.

- o 또한 몇몇 주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이혼이 10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운용기간이 짧아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점도 이혼보험 상품의 문제로 지적됨.
- o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혼보험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힘.

(Insurance Journal, 12/11)